"더욱 정진하는 작가 되겠습니다"

김영욱 시인 '몽유이거나 순례'
구선희 소설가 '당신의 신발'
생활 속 경험 작품으로 승화해
꾸준한 작품활동으로 보답할 것

Interview 김영욱 · 구선희 제1회 직지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영욱


구선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웅산)가 주최한 제1회 직지신인문학상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제3세대 한국문학을 견인한 녹원문학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직지신인문학상의 첫 수상작으로는 시 부문 김영욱 작가의 '몽유(夢遊)이거나 순례(巡禮)'와 단편소설 부문 구선희 작가의 〈당신의 신발〉이 선정됐다.

치열한 경합을 통해 선정된 두 작품 모두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부문 심사위원(문태준, 김성규, 박찬세)들은 김영욱 작가의 작품에 대해 "단연 군계일학"이라며 "요양원의 한 몽유병자에게서 '삶의 온갖 난간을 넘어왔을 순례자'를 보는 시인의 안목은 참으로 깊었다"고 상찬했다.

구선희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소설 부문 심사위원(윤후명, 우승미, 김덕희)들은 "아버지의 등산화를 신고 봉정암에 오르는 화자의 모습에서 저릿한 '생의 유전(流轉)'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밀도 있는 문장을 구사함으로써 신발을 버리는 곳이 왜 적멸보궁이어야 하는지도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했다.

신인문학상인만큼 두 작가 모두 신진작가이지만 오랜 시간 습작의 기간을 거쳤다. 문학을 포기하려 마음먹었던 적도 있었다. 백척간두의 순간에 그들을 지탱해준 것도 문학이었다.

실제 김영욱 시인의 당선작은 요양보호사 실습교육 기간 중 있었던 경험을 짧게 기록해 놓은 메모에서 영감을 받아 쓴 것이다. 그는 "2주간의 실습기간에 있던 일"이라며 "한 환자가 자신의 방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 환자의 말이 한동안 자신이 산 집이거나 마지막 누울 자리로 다가왔다. 회한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구선희 소설가의 '당신의 신발'도 문학을 포기하려 오른 산행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구선희 소설가는 "〈당신의 신발〉은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난 아버지를 그리며 미련스럽게 산을 오르는 이야기"라며 "실제 봉정암을 오르던 중 망가진 신발 때문에 적잖이 고생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문득 이런 게 소설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글쓰기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시작해 보려는 마음으로 봉정암에 갔는데 되레 계속하고 싶은 마음만 다지며 산을 내려왔다"고 말했다.

부침과 보림(保任)을 통해 나온 작품으로 받은 직지신인문학상. 두 작가는 모두 기쁨과 두려움 교차한다고 했다. 구선희 소설가는 "즐거운데 괴롭고 괴로운데 즐겁다는 생각으로 소설을 쓰는 시간을, 그간의 낭패를 보상받는 기분이었다"면서 "앞으로 갈 길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만큼 설렘이 더 크다. 오랜 방황과 번민을 끝내준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게 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욱 시인 역시 "시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시라고 생각하고 쓴 것이 벌써 10년이었다. 그 중 3년 동안은 정말 집중해서 썼지만 객관적 반응은 없었다"면서 "그런 와중에 듣게 된 소식이라 더 반갑고 기쁘다. '아직 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좋은 채찍질로 삼겠다"고 말했다.

직지신인문학상 수상으로 문단에 첫 발을 내딛은 작가에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를 두 작가도 알고 있다. 김영욱 시인은 생활을 위해 요양보호사 활동을 이어가지만 시작(詩作)은 놓지 않을 계획이다. 그는 "요양보호사 생활 속에서 삶의 본질의 문제와 맞닿을 것 같다.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삶을 반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말 많은 그림책은 싫다. 시의 본연에 충실하려 한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욕심을 거둬낸 시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선희 소설가는 "마부작침(磨斧作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듯 아무리 힘든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뤄진다고 한다"면서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 함께 읽고 쓰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싶다. 계속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지신인문학상과 시상식은 10월 14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개최됐다. 시 부문 당선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상패가, 소설 부문 당선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네팔 어린이에 자전거 100대

빛고을나눔나무, 후원행사서 기금마련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네팔 룸비니지역을 방문해 공립학교 저소득층 아이들 100여 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통학용 행복자전거 100대를 전달했다. 기금은 지난달 8일 광주 세심정사에서 열린 후원행사서 모연한 것으로 행사 취지에 공감한 지역불자들이 십시일반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을맞이 퓨전 재즈 콘서트

정읍 정토사, 올해로 23회째 펼쳐져



정읍 정토사(주지 일묵)는 10월 6일 가을맞이 퓨전 재즈 콘서트를 경내서 개최했다. 올해로 23번째 맞이하는 정토사 콘서트에는 정토사 산사음악회를 처음 시작한 원공 스님,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선운사 수련원장 대선 스님, 기획실장 진공 스님 등 스님들과 유진석 정읍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가을의 문턱에서 재즈의 진수를 만끽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
경주 불국사, 무설전서 봉행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지난 6일 태풍으로 인해 경내 무설전에서 제46회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영산대재에는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대학원장 덕민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법요식은 불국사 문화회관 선차반의 육법공양 의례, 헌화와 법어, 영산재 의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법흥왕과 표훈 대성사, 이차돈 성사 등 불국사를 창건하고 불교를 중흥시킨 여섯 조사들을 기렸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헌향을 시작으로 불국사 대학원장 덕민 스님이 여섯 성사의 추모시를 전했으며, 관장 종상 스님은 봉향제문을 낭독했다.

한편, 2부 예술제는 국악과 대중가수, 불국사합창단 등이 무대에 올라 풍성한 공연을 펼치며 행사를 가을 한마당 잔치로 물들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율장 통한 '화합 승가' 연구 매진"

제8회 반야학술상 수상자
이자랑 동국대 HK교수



저서 '율장 이념과…'로 수상
율장 한 부분서 시작된 연구
韓승가 화합 방향, 律로 제시

"그간 학술활동을 하면서 공저나 가벼운 글을 단독 저서로 낸 적은 있지만, 개인적 연구 성과를 모은 책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이후 연구성과들을 담은 책이라 애착이 가는 특별한 책인데 이를 반야학술상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8회 반야학술상 저술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자랑 동국대 HK교수〈사진〉는 수상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자랑 교수가 수상한 저서는 〈율장의 이념과 한국불교의 정향〉이라는 연구서다. 초기불교부터 현대 한국불교까지의 율장 이념에 대한 연구가 담긴 책이다. 그의 연구는 20여 년 전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중 만난 율장 '꼬삼비건도'의 한 구절의 내용서 시작됐다. 꼬삼비 비구들이 양립해 싸우던 중 한쪽이 독립해 별도의 승단을 꾸렸지만 이를 본 부처님은 자신이 제시한 일정 조건에 의해 포살과 갈마를 실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 구절은 이 교수에게 큰 울림을 줬고, 지금까지 연구하는 주제가 됐다.

이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주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화합 승가'이다. 승가의 화합을 율장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다.

"승가는 화합승으로, 화합이 중요합니다. 화합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장에서의 화합은 갈마를 올바르게 실행하는 상태입니다. 율장에서 그토록 많은 부분을 할애해 올바른 갈마 실행법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또한 한국불교도 이런 율장 사상에 부합하는 길을 가야한다고 책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수는 율장을 통한 승가 운영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최근 동국대 HK 연구 주제로 '보살계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인도 율장 등을 근거해 보살계와 율장의 관계를 살피고 나아가 동아시아 불교의 보살계 발전 과정을 분석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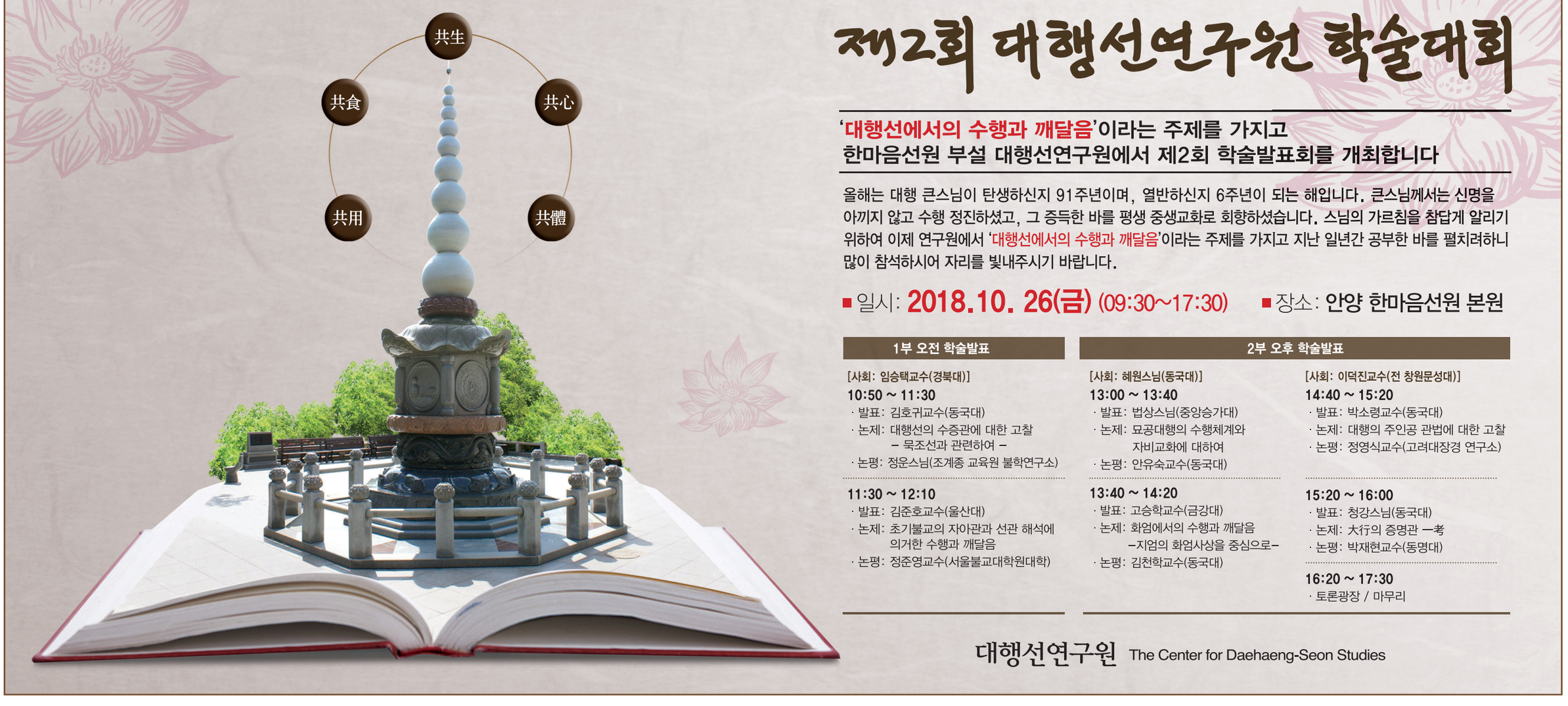
한편, 제8회 반야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4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개최된다. 올해 논문상은 해당자가 없어 시상되지 않는다. 신성민 기자

운문승가대학 제47차 동문회

명성 스님 "항상 불교발전 고민해주길"



청도 운문사승가대학 제47차 총동문회가 10월 4일 경내 선열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운문사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총동문회장 심제 스님 등 동문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서는 모교 발전에 관해 동문들이 논의했으며, 회주 명성 스님은 "자부심을 갖고 불교발전을 고민하는 동문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2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대행 큰스님이 탄생하신지 91주년이며, 열반하신지 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 정진하셨고, 그 증득한 바를 평생 중생교화로 회향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참답게 알리기 위하여 이제 연구원에서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일년간 공부한 바를 펼치려하니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8.10. 26(금) (09:30~17:30) ■ 장소: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1부 오전 학술발표

[사회: 임승택교수(경북대)]
10:50 ~ 11:30
· 발표: 김호귀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선의 수증관에 대한 고찰 – 묵조선과 관련하여 –
· 논평: 정운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11:30 ~ 12:10
· 발표: 김준호교수(울산대)
· 논제: 초기불교의 자아관과 선관 해석에 의거한 수행과 깨달음
· 논평: 정준영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2부 오후 학술발표

[사회: 혜원스님(동국대)]
13:00 ~ 13:40
· 발표: 법상스님(중앙승가대)
· 논제: 묘공대행의 수행체계와 자비교화에 대하여
· 논평: 안유숙교수(동국대)

13:40 ~ 14:20
· 발표: 고승학교수(금강대)
· 논제: 화엄에서의 수행과 깨달음 –지엄의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 논평: 김천학교수(동국대)

[사회: 이덕진교수(전 창원문성대)]
14:40 ~ 15:20
· 발표: 박소령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의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
· 논평: 정영식교수(고려대장경 연구소)

15:20 ~ 16:00
· 발표: 청강스님(동국대)
· 논제: 大行의 증명관 一考
· 논평: 박재현교수(동명대)

16:20 ~ 17:30
· 토론광장 / 마무리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